



《오빠는 풍각쟁이야》 쓴 장유정 완벽주의자의 ‘소심한’ 대중가요 연구 “신고식 했을 뿐, 대중가요 할 이야기 많다”

바쁘다. 토요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대중음악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한 《오빠는 풍각쟁이야》의 저자 장유정(34) 박사는 끝나자마자 점심도 먹는 등 마는 등 인터뷰 장소인 삼청동으로 왔다. 또 금호미술관 커피숍에서 기자에게 마치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말을 쏟아낸 뒤 부재중 통화를 확인하곤 서둘러 동생에게 맡겨둔 아들에게로 차를 몰았다. 이미 동생에게 도착하겠다고 약속한 시간은 지나있었다.

“대중가요에서 시대의 숨결과 혼을 만나”

노래, '부르지 못하면 학문의 대상으로'

이번 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부턴가 장 박사는 그렇게 살아왔다. 대학 3학년 대학가요제 예선 탈락 직후 가수에 대한 꿈을 접고, 공부를 결심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마음은 항상 음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서문에서도 간단히 밝히고 있는 대학가요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연은 이렇다. 장 박사는 좋은 가사를 쓰고 싶다는 이유로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다. 가정 형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연극영화과를 포기해야 했지만 괜찮았다. 장 박사의 꿈은 스타가 아니라 '유리피언 송 페스티벌'에서 봤던 것처럼 아름다운 가사를 특별한 선율에 담아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는 '노래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라디오 프로에서 개최한 '우리들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의'를 받은 적 있는 장 박사는 자신감이 있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기타를 배우고 재즈댄스를 배우고 3년간 가수의 길을 준비했다. 하지만 장 박사는 세상을 몰랐다. 점점 다가간 가수라는 직업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 오디션에 합격하고도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학가요제에 출전했다.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지쳐가고 있던 장 박사에겐 소

녀시절부터 꿈꿔오던 대학가요제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은 '넌 안 된다'는 가장 확실한 '도장'을 찍어서 장 박사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예선장소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곡을 쓴 친구가 중간에 군대에 가버린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기성 가수의 것 못지않은 데모테이프에 전문 작곡가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들려주는 데모테이프가 얼마나 근사한지 전 자신감을 잃은 나머지 무대에서 가사를 틀리는 실수까지 하고 말았죠.”

부끄럽고 비참했다. 이 바닥이라는 게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닥을 치자 새로운 길이 보였다. '그래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노래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자.' 장 박사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꿈을 수정했다. 하루 16시간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앞날에 대한 고민과 불안으로 새벽 버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도로남〉이라는 트로트를 듣다가 목 놓아 울어 버린 것도 그때였다.

대중가요라는 보물찾기 혹은 퍼즐 맞추기

하지만 대학원의 아카데미한 분위기는 장 박사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민요'로 석사 논문

을 쓰고 기회를 넘보다 2000년부터 대중가요 연구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구비문학 특히 민요 연구는 '연막' 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노래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이번 연구에 도움을 준 분야였다. 따지고 보면 민요나 향가, 고려가요 등은 모두 당대의 대중가요이기 때문이다. 고전문학 연구는 결국 노래 연구인 셈이고 국문학자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대중가요 연구라는 신념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다 장 박사의 연구에 몰표를 터준 것은 영인본으로 나온 '유성기 음반 가사지' 여섯 권과 '서지 목록집' 두 권이었다.

"행운이었죠. 가사지를 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제가 막연히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미궁에 빠진 셈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당시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신문과 잡지 등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찾는 기분이었다. 가령 30년대 유행했던 <오빠는 풍각쟁이야>라는 노래 가사에 '월급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하지만 '월급쟁이'를 오늘날에도 있는 단어라고 그냥 넘어가선 곤란하다. 지금이야 쥐꼬리만한 월급에 정부의 확실한 세수확보 대상이지만 당시 월급쟁이는 미혼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모던'한 계층이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다보니 힘들기도 했지만 보물 찾는 것처럼 쾌감과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사지에 보면 마치 범죄자처럼 천으로 가수가 눈을 가리고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땐 얼굴 없는 가수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당시 음악시장의 다이내믹한 분위기도 놀라웠구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연구에서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 문헌을 통한 고증보다는 반일이라는 민족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은 바가 더 컸다.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연구를 하면서 항상 제 경험을 비춰봅니다. 가령 슬플 때 슬픈 노래를 찾는 이유는 더 슬퍼지려고 절망하려고가 아닙니다. 문학과 마찬가지로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슬픈 노래라고 해서 패배주의라고 하거나 밝은 노래라고 해서 일부를 찬양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여선 곤란하죠. 물론 30년대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달리 40년대 '전시체제'로 넘어가면 작곡가나 가수들이 친일을 하는 등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물론 대중음악 연구 환경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작년 11월엔 국제대중음악학회의 한국지부 역할을 하게 될 한

국대중음악학회 창설을 기념해 '한국 대중음악, 과거에서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이때 장 박사는 세계 음악인들을 앞에 두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직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창립자로서 노동가요의 대중화를 불러일으켰던 김창남(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회장이 장 박사에게 "우리 때는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장박사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기원이나 이식, 자생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는 언제나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는 과정에서 갈등하거나 접목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로트도 그렇고 랩이나 락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와 정서를 녹여 우리들이 즐겼다면 우리 노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가요의 생명력은 겁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육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도 하반신 마비가 찾아와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 남자의 유일한 낙은 소형 카세트를 통해 뽕짝 메들리를 듣는 것이었다. 가족들의 시끄럽다는 성화에도 뽕짝 메들리 듣기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 후 그 남자는 죽었고 아내가 말했다. 남편이 남긴 건 이것밖에 없다고. 누군가에게 뽕짝 메들리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준 '명반'이다.

"대중가요가 이렇게 가야한다 저렇게 가야한다는 식의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대중가요에선 보편성이라든가 삶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진정성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처럼 20세기 초반의 노래가 지금도 사랑받고 예전에 인기를 끌던 노래들이 리메이크돼 다시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대중가요의 생명력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덧붙이자면, 장 박사는 '논문을 재구성해 학술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드러워지거나 가벼워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더 엄밀하고 엄격하고 싶었다. 때문에 고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 뻘다. 장 박사의 표현을 따르면 '소심하게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 박사는 이제 신고식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다. **한민**

취재_신동섭 기자 사진_박신우 기자